

한국기상학회의 30년 발자취

김 성 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돌아보며

1963년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국 기상학 발전에 관심있는 60여명의 인사들이 대학 강의실에 모여 한국기상학회의 창립을 선포한 지 어언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 많은 어려움과 기쁨의 과정을 통해 성년에 이르듯 우리 학회도,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함께,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창립 회원 중에는 현재에도 학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나신 분들도 있다. 그 동안 우리 기상학회는 꾸준히 성장하여 1993년 현재 정회원 435명, 특별회원 25기관, 그리고 연 세출액이 5,300여만원, 기금이 6,600여만원을 초과하는 사단법인체로 되었다. 학술지 및 소식지 발간, 정기 학술 발표회 개최, 심포지움 및 워크샵 개최, 예산 집행 규모의 발전, 그리고 젊은 회원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창립 모임에 참석하였던 본인으로서는 실로 감회가 새롭다.

한국기상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학회 발자취를 돌아보고 내역별로 분석하여 우리 학회의 발전상을 정리해 보는 일이 창립 회원인 본인에게는 물론 혈기 왕성한 젊은 회원들에게도 의미있는 일로 여겨졌다. 그래서 창립 회원의 한 사람인 본인과 창립 이후 세대인 젊은 회원의 공동 작업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것이 우리 회원 모두에게 한국기상학회의 발전사와 규모를 알게 하고, 앞으로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상학의 학술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도는 현 학회의 창립 이전부터 있었다. 6·25 동란 이후에 당시의 중앙관상대장이었던 고 이원철 박사를 주축으로 한국기상학회가 창설되었었다. 그러나 중앙관상대(현재의 기상청)의 과장급 직원을 회원으로 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회원증을 만들어 교부한 바 있었지만 정관의 작성은 물론 학회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제2대 중앙관상대장인 고 국채표 박사는 관상대 직원만으로는 기상학의 학술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유명 무실하던 구학회를 해산시킨 후, 관상대 직원은 물론 대학, 군 등 각계 기상 관련 인사들을 포함하는 현 학회의 설립을 위한 여러 차례의 준비 모임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1963년 12월 19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제8강의실(철거되어 지금은 없음)에서 한국의 기상학계 인사를 총망라하는 한국기상학회가 창립되었으며 초대 학회장에 국채표 박사가 피선되었다.

그 이후 매년 중앙관상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기타 대학, 기상연구소 등에서 정기 및 임시 총회가 개최되어 임원 선출, 조직 개편, 학회 운영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학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개편은 매 2년마다 이루어져 현재 민경덕 교수를 회장으로 하는 16대 임원진에 의하여 학회가 운영되고 있다(표 1 참

고). 초기에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간사 3인 등의 임원 조직이었으나, 1986년 이후에는 부회장을 학계, 기상청, 공군 소속에서 각 1인씩 선출하여 학회 운영을 원활히 하는 등 조직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포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대기과학 용어심의위원회, 연구개발위원회의 5개 전문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학회의 30년 발자취에서 팔목할 만한 일은 사단법인으로의 등록과 학회 사무실의 마련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8월 28일 과학기술처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1990년 5월에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의 기상관측소 2층에 독자적인 학회 사무실을 마련한 이후 한 명의 여사무원이 상근하고 있다.

학회 창립 이후 30년 동안 우리 학회내 또는 회원들 간에 발생한 재미있었던 일, 어려웠던 일, 긴장감 넘치는 일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여기에 기록하지 못한 일화들은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 수고해 주시고 계신 여러 원로들의 글 또는 말씀을 통하여 후배 회원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는 지난 30년 동

안 학회의 회원, 학술 활동, 예산 규모 등의 발전상을 간략하게 정리 및 분석하였다.

2. 내역별 분석

2.1 회원

2, 3년 간격의 회원수 변동 상황을 표 2에 나타내었다. 1963년 창립 당시에는 60여명이었던 회원수는 1966년 1월에는 정회원 109, 준회원 32명으로 증가되었으나 이듬해인 1967년 12월에는 정회원 104명, 준회원 29명으로 감소하는 등 불규칙한 증가와 감소 경향을 보였다. 신입 회원의 입회로 인한 증가와 회원 사망, 회비의 연속적 미납,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감소를 합산한 결과 이와 같은 증감을 보인 것이다.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특별회원도 1967년에 2곳이었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1981년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주로 회비의 미납으로 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회원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이며 1993년 10월

표 1. 한국기상학회 역대 임원

기간	회장	부회장	총무	편집	재무	섭외
초대 63.12-66.4	국채표	김성삼, ?	이종경	노재식	?	
2대 66. 4-68.4	국채표	김성삼, 김재은	심운택	배중학	?	
3대 68. 4-68.6	노재식	손형진, 서병우	김진면	이승만	김광식	
4대 68. 6-70.4	김진면	김성삼, 서병우	한영호	김광식	장명수	
5대 70. 4-72.4	김성삼	서상문	박천기	조희구	이내영	
6대 72. 4-74.4	정창희	김광식	박용대	조희구	이병설	
7대 74. 4-76.4	서상문	성락도	박용대	이승만	이내영	
8대 76. 4-78.4	김광식	성락도, 배중학	양원용	이병설	전종갑	
9대 78. 4-80.7	노재식	손형진, 조희구	이영복	이내영	이병설	
10대 80. 7-82.5	손형진	조희구, 김윤태	성학중	이승만	이병설	
			김문일			
11대 82. 5-84.4	성락도	이승만, 서철수	최희승	박순용	임규호	
					정순갑	
12대 84. 4-86.4	조희구	한영호, 서철수	홍성길	이동규	이내영	
13대 86. 4-88.4	이승만	김문일, 민경덕, 심경섭	이태영	박순용	윤순창	신현진
14대 88. 4-90.3	김정우	박순용, 손창수, 최희승	이천우	이동규	강인식	이태영
15대 90. 3-92.4	한영호	박순용, 손창수, 최희승	전종갑	이동규	강인식	이태영
16대 92. 4-현재	민경덕	이광호, 홍성길, 이만호	이동규	전종갑	이태영	이천우

주: ? 확인되지 않았음.

표 2. 한국기상학회 회원수 변동 상황

일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66. 1	109	32	
67.12	104	29	2
68.12	81	19	4
70. 6	96	20	4
73. 6	99	15	6
76. 6	107	10	14
79. 6	105	5	16
81. 8	191		14
87. 7	314		39
89.12	299		27
90.12	326		29
93.10	435	2	25

현재 정회원 432명 특별 회원 25곳으로 되어 있다.

회원들의 소속 분포를 표 3에 나타내었으며, 그 분포 비율을 그림 1에 보였다. 대학에 있는 회원이 32.9%로 가장 많으며, 기상연구소를 포함한 기상청 소속이 20.8%, 군에 근무 중인 회원이 13.0%를 차지하였다. 군의 대부분은 공군 소속이며 육군과 해군은 각각 1명 뿐이었다. 연구소와 산업체에 근무하는 회원은 각각

6.9%와 3.2%로 다른 학회들(예, 한국대기보전학회)에 비하여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는 달리 기타 항목에 포함된 회원수는 23.1%로 대학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소속 불명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서울이 가장 많은 48.8%, 충청 17.7%, 경상 16.6%, 경기 8.3%, 강원 3.7%, 전라 3.2%, 그리고 제주와 해외가 각각 0.9, 0.7%를 보였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회원이 서울에 있는 까닭은 대학과 기상청, 기상연구소 등 기상학 관련 기관이 서울에 많았기 때문이다. 경상과 강원, 전라도 지역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상학 관련 학과가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회원의 12%를 차지하는 공군 소속 회원 대부분의 주소가 공군73기상전대로 되어 있어 공군 본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공군 본부가 속해 있는 충청 지역이 다른 지방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특별회원의 분포 현황을 표 4에 나타내었다. 공공기관의 도서관이 64%로 월등히 많고 기업체가 20%, 관공서가 16%를 차지하여, 학술지

표 3. 정회원의 소속별 분포 현황(1993년 10월 현재)

소속	대학	기상청 ¹	군 ²	연구소 ³	기업체 ⁴	기타 ⁵	합계
수	142	90	56	30	14	100	432
비율(%)	32.9	20.8	13.0	6.9	3.2	23.1	100

주: 1 기상청에 기상연구소 인원 포함

2 공군(54), 육군(1), 해군(1)

3 KIST, 해양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등

4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

5 언론(4), 교사(6), 관청(2), 사회단체(4), 소속 불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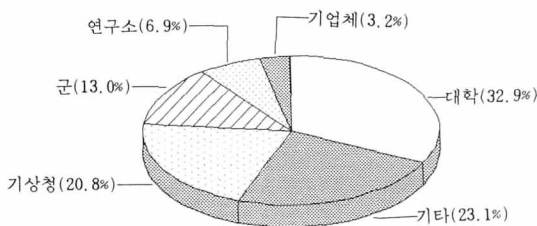


그림 1. 한국기상학회 회원의 기관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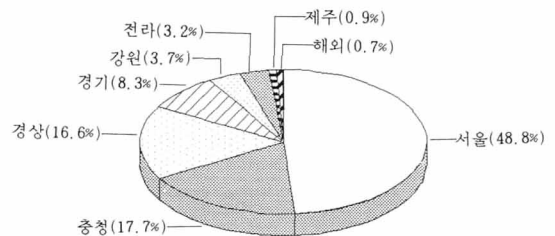


그림 2. 한국기상학회 회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를 통한 학술 정보 목적으로 특별 회원에 가입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2.2 학술 활동

기상학회의 학술 활동은 학술지 발간과 정기 학술 발표회 및 심포지움 또는 워크샵 개최로 대별할 수 있다.

학술지인 “韓國氣象學會誌”는 논문 5편, 연구노트 2편으로 구성된 48쪽의 첫 호가 1965년에 발행된 이후 1984년까지는 매년 1권 또는 2권, 1985-1988에는 매년 3권, 그리고 1989년 이후에는 매년 4권이 발행되어 1993년 6월 현재 총 60권이 발간되었다. 그 동안 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연구 논문은 총 306편, 연구노트 총 27편에 이르렀다(표 5 참고). 매년 학

표 4. 특별회원 분포 현황(1993년 10월 현재)

기관	구	비율(%)
도서관	16	64
관공서	4	16
기업체	5	20
합계	25	100

표 5. 한국기상학회지 발간 상황(1993년 9월 현재)

권	호	발간년도	편집인	논문수	연구노트수	쪽수
1	1	1965	노재식	5	2	48
2	1	1966	"	5	1	42
3	1	1967	배종학	6		43
4	1	1968	김광식	6	2	60
5	2	1969	"	6	2	112
6	2	1970	조희구	5	3	90
7	2	1971	"	8	2	78
8	1	1972	"	4	1	50
9	2	1973	"	9	1	48
10	1	1974	이승만	3	1	46
11	1	1975	"	5		47
12	1	1976	이병설	4		44
13	1	1977	"	6	2	72
14	1	1978	이내영	5		52
15	2	1979	"	11		124
16	2	1980	조희구	9	1	98
17	2	1981	"	9		94
18	2	1982	"	15		142
19	2	1983	한영호	17	1	230
20	2	1984	민경덕	13		154
21	3	1985	"	11	2	195
22	3	1986	박순웅	12	1	205
23	3	1987	"	14		262
24	3	1988	이동규	13		205
25	4	1989	"	21		313
26	4	1990	"	17	1	280
27	4	1991	"	22	2	368
28	4	1992	전종갑	32	2	520
29	2	1993	"	13		180
합계	60			306	27	4202

회지에 실린 논문수를 그림 3에 나타내었는데, 1978년까지는 매년 평균 약 5편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1992년에는 모두 32편이 발표되었다.

그 동안 학회지에 발표된 306편의 논문을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종관 기상 30.8%, 물리 기상 21.9%, 역학 기상 19.2%, 기후학 15.9%이며 응용기상과 대기 화학 부분이 각각 9.9, 2.3%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학회의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상황을 표 6에 나타내었다. 1964년 3월 22일에 서울대에서 첫 학술발표회를 개최한 이래 초창기에는 매년 1회 또는 2회 개최하였으며, 1978년 이후에는 매년 2회, 즉 봄과 가을에 각각 개최하였다. 매년 발표 논문수는 1970년대 말까지는 매년 평균 10편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고 1989년 이후에는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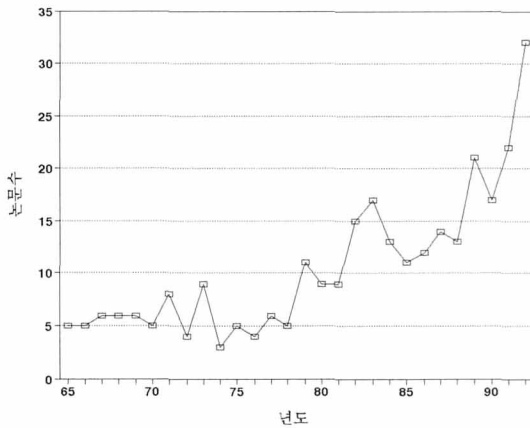


그림 3. 연간 한국기상학회지 발표 논문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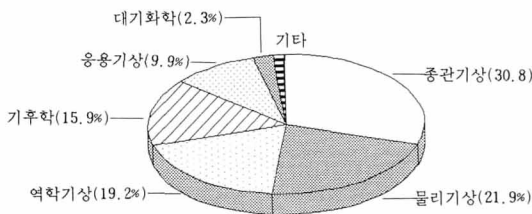


그림 4. 한국기상학회지 발표 논문의 분야별 분포 현황

속 증가 추세를 보여 1993년에는 모두 41편이었다. 1993년 가을 학술발표회까지 총 50회의 학술 발표회가 개최되어 총 62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90건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정기 학술발표회 외에도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움 및 워크샵 등의 학술 행사를 1964년 이래 부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최근들어 국제적 수준의 학술회의의 개최가 많았다(표 7 참고).

2.3 예산

기상학회의 매년 예,결산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1987년 이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1987년 이후의 것은 학회 정기 총회시 재무 간사의 예산과 결산 보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자료가 확보된 해의 예산과 결산 총액의 차이가 작아 결산 자료만을 표 8에 나타내었다. 기금을 제외한 학회 운영비를 나타내는 세출액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1993년의 30주년 기념 행사와 같은 특별 행사가 있는 해에는 그 증가액이 크게 나타났다. 특별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1994년 세출액은 예산액인데 세출액이 4,340만원으로 1987년도의 840여만 원에 비하여 5.2배나 증가한 액수이다. 그래서 7년 동안에 매년 평균 약 74%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1년에 처음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한 학회의 기금도 꾸준히 늘었다. 1987년 기준으로 보면 1993년도에는 2.5배 증가하여 매년 평균 약 4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참고로 1993년 11월말 현재 일반기금 4,554만원, 운재학술상 기금 1,059만원, 송천학술상 기금 1,080만원으로 총 6,693만원의 학회 기금이 확보되었다.

2.4 기타

학회에서는 학회 및 학문의 발전에 공이 큰 회원에게 포상을 하고 있으며, 각 상의 수상일과 수상자 그리고 포상 내용을 표 9에 나타내

표 6. 한국기상학회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상황

회	일자	장소	발표논문수	초청강연수	비고
1	64. 3.22	서울대	3		
2	65. 4.24	중앙관상대	3		
3	66. 3.30	중앙관상대	3		
4	67. 5.20	성균관대	3		
5	68. 4.20	중앙관상대	2		
6	68.12. 7	중앙관상대	6		
7	69. 4.19	서울대	3		
8	70. 1.10	중앙관상대	4		
9	70.11.28	서울대	4		
10	71. 5.14	연세대	3	2	
11	71.12. 3	중앙관상대	4	2	
12	72. 4.22	중앙관상대	5		
13	73. 4.23	중앙관상대	4		
14	74. 4.23	중앙관상대	1	2	
15	74.10.30	중앙관상대	2		
16	75. 4.12	중앙관상대	3		
17	76. 4.24	서울대	5		
18	77. 4.11-12	부산대	6	4	
19	78. 4.27	기상연구소	3	2	
20	78.10.27-28	전북대	7	2	
21	79. 4.27-28	부산수산대	6	2	심포지움 동시 개최
22	79.12.18	기상연구소	4	1	10.26. 심포지움후 연기 개최
23	80. 7. 4	기상연구소	7	2	심포지움 동시 개최
24	80.11.15	기상연구소	4	2	
25	81. 5. 2	연세대	7	4	
26	81.11.13-14	전남대	10	4	
27	82. 5. 7	서울대	7	2	
28	82.10.22-23	부산수산대	11	4	
29	83. 5. 6-7	연세대	13	4	
30	83.10.21-22	전북대	17	4	
31	84. 4.27-28	경북대	17	7	
32	84.10.20-21	공주사범대	23	5	
33	85. 5. 4	중앙기상대	17	2	
34	85.10.12	이화여대	7	2	
35	86. 4.25-26	중앙기상대	15	2	
36	86.10.24-25	서울대	14	2	
37	87. 4.24-25	연세대	14	1	
38	87.10.23-24	강릉대	12	2	
39	88. 4.22-23	서울대	17	3	
40	88.10.28-29	전북대	23	2	
41	89. 4.28-29	KIST	22	2	
42	89.10.27-28	경북대	29	2	
43	90. 3.25	중앙기상대	18	2	심포지움 동시 개최
44	90.10.26-27	부산수산대	23	2	
45	91. 4.26-27	연세대	23	4	
46	91.10.25-26	강릉대	37	1	
47	92. 4.24-25	서울대	30	2	
48	92.10.30-31	전남대	36	2	대기보전학회와 공동개최
49	93. 4.23-24	경북대	42	2	
50	93.10.28-29	서울대	41		심포지움 동시 개최
합	계		620	90	

표 7. 한국기상학회 주최 세미나, 심포지움 및 워크샵 개최 상황

일자	장소	주제	발표자	비고
64. 5. 20	중앙공보관	농업, 수산, 등산과 기상	현신규 외 2인	기상학 교양강좌
64. 9. 13	성균관대	서울의 폭풍우	?	세미나
68. 9. 20-21	서울대	기상학계의 최근 Topics	김성삼 외 5인	세미나
73. 3. 23	한국일보사		서상문 외 3인	기상의 날 기념강연회
79. 4. 27	부산수산대	해양 산업과 기상	한영호 외 2인	심포지움
79. 10. 26	기상연구소	농업과 기상	임강채 외 5인	심포지움
80. 7. 5	전경련회관	수문기상과학 발전	윤용남 외 5인	수문학회와 공동개최
85. 5. 20-24	조선호텔	국제대기환경학술회의	104편 발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본 학회 후원
90. 3. 25	중앙기상대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과학과 기술	이승만(토론: 김문일 외 3인)	심포지움
90. 7. 26	서울대	공동워크샵	T. Nakajima 외 5인	해양학회와 공동개최
91. 7. 5	잠실롯데월드	중규모 대류계의 역학	이인영 외 5인	고 이대영 교수 주도 학술회의
91. 10. 14	서울대	김중호우	박순용 외 2인(토 론: 정홍수 외 3인)	심포지움
91. 11. 13-14	서울대	한일 TOGA-COARE	한일 관계자	워크샵
92. 10. 13	서울대	한반도 주변의 환경변화	박정규 외 2인(토 론: 이종범 외 4인)	학술회의
92. 10. 27	강릉대	연안역 대기 및 해양 현상	T. Yoshikawa 외 9인	국제학술회의
93. 10. 27-28	서울대	기후 변화와 환경	J. Shukla 외 9인	국제학술회의

(1인 발표의 학술 강연회 및 세미나는 제외시킴)

표 8. 한국기상학회 결산 내역(단위: 천원)

기간	세출	기금
86.4-87. 3	10,681	23,553
87.4-88. 3	8,340	26,908
88.4-89. 3	13,465	30,879
89.4-90. 3	15,747	36,011
90.3-90.12	24,696	35,909
91.1-91.12	31,269	42,430
92.1-92.12	34,300	48,885
93.1-93.12	55,723	67,699 ¹
94.1-94.12	43,400 ²	

주: 1 기금 내역

일반 기금 : 46,110 천원*

운재학술상: 10,698 천원

송천학술상: 10,891 천원

총합: 67,699 천원

*연구개발위원회 대여금 450만원을 포함한 금액
2 예산

었다. 공로상은 1986년부터 1993년 10월 현재까지 8명의 회원에게 수여되었다. 학술상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5명의 회원에게 수여되었고 1991년부터는 운재학술상으로 변경되어 한국기상학회지에 최근 5년간 게재된 학술 논문 저자 중에서 학술적 공헌이 큰 회원에게 수여되었다. 학술장려상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명의 회원에게 수여되었고 1993년부터는 송천학술상으로 개명되어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최근 2년 이내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하기로 되어 있다.

기상학회 소식이 1991년 6월 이전에는 학술지의 뒷부분에 실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매 6개월마다 발행되는 기상학회보인 “大氣”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1993년 6월 현재 총 6권이 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주로 권두사, 용어해설, 회무, 정기 학술발표회, 회원

표 9. 한국기상학회 포상 기록

상명	순번	년월일	수상자	포상내용
공로상	1	1986. 4. 25	김진면	금장메달
	2	1986. 4. 25	김성삼	금장메달
	3	1988. 4. 22	김광식	금장메달
	4	1990. 3. 23	손형진	상장, 금장메달
	5	1991. 10. 25	성락도	상장, 금도금메달
	6	1992. 10. 30	박용대	상장, 금도금메달
	7	1993. 10. 28	노재식	금도금메달
	8	1993. 10. 28	김제성	금도금메달
학술상 (운재학술상) ¹	1	1980. 5. 24	김성삼	상패
	2	1983. 5. 6	조희구	상패 + 상금 30만원
	3	1986. 4. 25	정창희	상패 + 상금 30만원
	4	1988. 4. 22	박순웅	상패 + 상금 30만원
	5	1990. 3. 23	이동규	상장, 금장메달
	6	1991. 10. 25	이승만	상장, 금메달
	7	1992. 10. 30	김정우	상장, 금메달
학술장려상 (송천학술상) ²	1	1991. 10. 25	강인식	상금 100만원
	2	1992. 10. 30	이태영	상금 100만원

주: 1 1991년부터 명칭 바꿈(云齋)

2 1993년부터 명칭 바꿈(松泉)

동정, 신입회원, 학회 및 관련 학술회 안내, 신간도서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3. 정리하며

한국기상학회의 창립에서부터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와 내역별 분석을 간략하게나마 기술하였다. 회원수 증가, 학술지 및 학술발표회 발표 논문수, 세출 및 기금 결산액 등을 분석하였을 때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회의 성장에는 모든 회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내역별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학회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학회, 곧 한국 기상학계의 주요 흐름 방향이다. 학회의 설립 목적이 학술적 발전 촉진에 있어서인지 학술지 발표 논문의 내용이 학문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4 참고). 실제 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응용 기상 및 대기 화학(주로 대기 오염 분야임) 분야의 비율이 작게 나타났다. 또한 특별회원의 기업체 비율이 작은 면(표 4 참고)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학회 규모에서는 응용 기상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없을 수도 있으나 기상학회의 급속한, 아니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기상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기상학계의 문제점으로, 표 3 및 그림 1,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회원, 학술지 게재 논문 저자의 분포가 서울 및 대학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에도 많은 회원이 있고 그 곳에서의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지방 대학 기상학 관련 학과 및 연구소 설립을 학회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연구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소 및 관공서의 학술 논문 발표가 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도 또한 요구된다.

학회 운영상의 또 다른 문제로 회원 관리를 들 수 있다. 표 2의 회원수 변동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증가가 아니라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표 3에 나타났듯이 소속 불명 회원수가 80을 넘고 있다. 또한 주소록 관리가 원활하지 못해 학회지, 소식지 등의 학회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회원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회원들의 주소, 소속, 동향 등이 신속하게 파악되고 상호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내실있는 회원 관리가 요구된다. 과학재단 및 학술진흥재단 등 정부 기관에서 과학 분야 전문인의 data base를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있지만 한국기상학회 회원의 인력, 연구 분야 및 업적 등에 대한 data base화를 추진할 때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회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한국기상학계의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의 하나가 관련 자료의 미비였다. 학회지와 최근에 발행되기 시작한 학회보인 “大氣” 외의 다른 자료들은 잘 정리 및 보관되지 않았으며, 특히 과거 자료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학회의 초창기 부분의 서술에 미비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란다. 만일 이 부분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를 가진 분이 있으면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기상학회도 30주년을 맞이하였으므로 지난 역사에 대한 기록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1990년 이후 고정된 학회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있으니 앞으로는 잘 정리되리라 믿는다.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광고를 들 수

있다. 우리 학회의 목적과 추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회원들에게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학술 발표회 및 연구 심포지움, 워크샵 등의 시, 공간적 행사 뿐만 아니라 연구 업적, 발행 도서 등을 알려 널리 보급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관심이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유관 기관, 유관 학계는 물론 언론 매체와의 상호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행히도 요즈음의 관심사가 지구 및 지역 환경 문제이니 기상학회에 대한 관심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감사의 글

이 글이 완성되기까지 자료 수집과 내용 분석 및 문장 작성에 큰 공헌을 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김용준 회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참고문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7: 한국현대문화사대계 III.
 한국기상학회, 1965-1993: 韓國氣象學會誌 1(1)-29(2).
 한국기상학회, 1983: 韓國氣象學會誌 창립20주년기념 특집호.
 한국기상학회, 1991-1993: 大氣 1(2)-3(1).